



“4월 15일 반드시 투표합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전진대회에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하위 20% 광주·전남 의원 포함 안된 듯

### 대상자 공개 여부 논의... 오늘부터 총선 출마 후보 공모 시작 광주·전남 지역위원장 출신 예비후보들 공심위 심사 통과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 공모를 시작함에 따라 공천 티켓 확보를 노리는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공천 심사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시대적 정체성에 미달하는 후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현역 국회의원 교체 폭이 역대급이 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3명에 불과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정치적 기대권이 있는 기존의 지역 위원장들이 공심위(공천관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넘어설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 공심위는 20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다. 이후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 심사를 진행한

면 설 연휴 전에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명단 공개 여부로,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명단 공개시 당사자에게 경선 감산 이상의 치명적 타격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깨끗하게 공개하는 것이 본선에서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런 가운데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해 지도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 협의 출마를 유도하거나 불출마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공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하위 20%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된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갑석·서삼석 의원은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데다 이개호 의원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감점 요인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위원장 출신 예비 후보들이 모두 공심위 심사를 통과할 것인지

## 총선 라운지

### 윤영덕 “일본 정부·전범기업 배상 받는데 최선”

####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요행동’이 500회를 돌파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예비후보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초창기부터 7년 동안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금요행동’ 500회 투쟁을 기점으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 내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 고삼석 “광주·전남 디지털 혁신분야 육성 시급”

####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고삼석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의 인공 지능 중심도시 전략은 이번 총선 고약인 광주의 디지털 신경제 지도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와 전남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청년스타트업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 디지털 혁신분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이형석 “노태우 장남 영입설은 가짜뉴스”

####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최근 한 언론은 ‘민주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변호사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시정정보도 요정을 통해 가짜 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교란을 시키려고 하는 가짜뉴스이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 한국당-새보수당 통합열차 ‘빠져’

### 한국당 ‘빅텐트’·새보수당은 ‘당대 당 통합’ 요구... 협의체 이전

보수통합의 양대 축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이 흔들리고 있다. ‘태극기부대’로 표현되는 우리공화당부터 한때 중도에 자리한 안철수 전 의원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꾸미는 한국당과, ‘당대 당’ 통합을 주장하는 새보수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설 연휴를 맞은 19일 정치권 안팎에선 이렇다그 설 밤상에 ‘통합 메뉴’를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초 양당 내 물밑 통합 논의 과정에선 설 연휴 전까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극적 만

반대로 새보수당은 한국당이 당 대 당 ‘합당’이 아닌 새보수당 인사들의 ‘입당’을 원하므로 양당 협의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 집을 열고 새 집을 짓는 대신 ‘백기투항’ 또는 ‘한국당으로의 회군’을 의미하기에 양당 통합 재판을 관철해야 한다는 게 새보수당의 주장이다.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국당은 지난 17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천 모드로 전환했다. 표면적으론 선거 준비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더이상 새보수당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모두 ‘통합 없이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는 만큼 설 전 극적 타격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연합뉴스

### 전진숙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북구 유치 노력”

####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시는 GRDP 35.3조원(전국 비중 2%), 1인당 GRDP는 2,357만원(전국대비 69.8%) 수준으로 타 지역대비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윤’조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의 기술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을 광주와 북구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0
		유아교육학과(D.Ed.)	0
		사회복지학과(D.S.W.)	0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0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0
석박사통합	석사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코칭심리학과(M.Psy.)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회)교(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원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